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 두 남자

차태현 & 하정우

별들이 만났다. 20일 개봉한 '신과함께-죄와벌'은 탁월한 상상력으로 저승의 세계를 펼쳐내는 판타지 영화다. 이야기를 이끄는 두 축은 배우 차태현(41)과 하정우(39). 많은 사람을 구하고 죽은 소방관 차태현은 저승에서 지옥 재판을 이끄는 차사 하정우를 만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다. 1부와 2부를 합해 총 제작비 400억원의 대작을 합작한 두 배우의 책임감은 무겁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는다는 자신감 역시 단단하다. 차태현과 하정우를 차례로 만났다.

차태현

“내 남은 변신은 악역뿐
뻔한 스릴러 범인 말고”

차태현은 인간미 넘치는 인물을 맡고 '신과함께'에 감동을 불어넣는다. “현재 한국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치를 한 느낌”이라고 했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시나리오 받자마자 자홍 역할 느낌 딱!
다시 태어난다면 아들로…나한테 효도할래요”

차태현에게 '신과함께'는 어쩌면 운명처럼 다가온 영화다. 2015년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촬영 당시 현장에 놓인 소품 가운데 '신과함께'의 원작 만화책이 놓여 있었다. 이를 본 차태현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고 자신이 연기하게 될 캐릭터가 뭔지를 단박에 알아냈다고 했다. 연출자 김용화 감독이 한 공익광고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출연을 제안한 것 같다는 차태현은 “아! 내 이미지가 필요했나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차태현이 지닌 이미지는 실제 그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흔치 않은 블록버스터, CG에 크게 기대 작업을 해야 하는 본격적인 생경함, 자신만큼 쟁쟁한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고 이미 흥행감독으로 인정받은 연출자와 작업한다는 점 등 차태현은 '신과함께'에서 얻은 새로운 경험의 즐거움을 자랑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심지어 “하정우 등 몇몇 캐릭터의 비중이 저보다 더 크고 그 인상도 제 캐릭터보다 강렬한데 다른 배우들의 이름이 내 앞에 먼저 나서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고 말한다.

그런 솔직한 덕분에 차태현은 '신과함께'를 통해 내보이는 자신의 모습에도 거리낌이 없다. 그전 결국 관객이 그에게서 얻는 호감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그는 누구나 상상해 보는 저승의 세계에서 망자가 되어 차사들과 함께 자신의 생을 돌아보는 인물을 맡았다. 소방관으로 일하며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갔던 그를 통해 관객은 상상 속에서도 가늠해 보지 못했던 저승을 경험한다.

당연히 극중 저승 또한 김용화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의 상상으로 그려진다. CG(컴퓨터그래픽)를 통해 구현

된 저승의 세계는 관객이 미리 떠올린 이미지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는 연기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차태현에게 '신과함께'는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대”였고, “현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뭔가를 한 듯한 느낌”을 준 작품이 됐다.

하지만 연기하는 동안 CG가 생성할 이미지를 감안해 설치하는 그린매트 앞에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연기하는 건 외로운 싸움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2012년 드라마 '전우치'에 출연하며 비슷한 작업을 경험한 덕분에 하정우, 주지훈 등 동료 연기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난 뒤 차태현은 “잘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승을 떠난 망자가 되어 지난 삶에 대한 심판을 가하는 저승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상황을 연기로 경험한 덕분이다. “살을 돌아보며 똑바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살을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그래서 물었다. 만일 '다음 생애'에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질문은 질문인데 그는 막힘이 없었다. “수찬(큰아들)이! 수찬이로 태어나 효도했으면 좋겠다. 하하하!”

이제 갓 10살이 된 자신의 큰아들을 떠올리며 너스레를 떨지만 이미 예능프로그램 '1박2일'을 통해 그 화목함을 익히 보아온 많은 이들에게 차태현의 '환생 후 바람'은 또 그만큼 자식 자랑으로 들린다. 그렇게 말해도 거부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차태현 스스로 지금껏 지켜온 아니 별 의도와 목적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덕분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뭔가를 꿈꾸고 있다. “내게 변신은 이제 악역 밖에 없다. 너무 뻔한 악역 말고, 보자마자 내가 범인인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말고, 하하!” 스크린 속에서 악당으로 달려드는 차태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하정우

“지옥 촬영 마칠 때마다
미션 클리어하는 기분”

관객들을 판타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정우. 극중 CG 분량이 상당한 만큼 ‘그린매트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허공에 대고 액션 연기…어찌나 민망하던지
타로점 봤더니 2~3년 후에 결혼 운 있대요”

오랜만이긴 한 모양이다. 다작하는 하정우가 1년6개월간 스크린에서 모습을 감추자 여기저기서 궁금증을 쏟아졌다.

“자주 가는 과일가게 사장님마저도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고 묻더라. 배급 상황이며 제작 진행을 설명할 수 없는 노릇이요. 하하! 그 사이에 영화 4편을 찍었는데 말이다.”

사실 하정우는 웬만해서 쉬지 않는다. 지난 1년6개월도 영화 작업으로 꽉 채웠다. 그렇게 완성된 영화가 '신과함께'와 27일 개봉하는 '1987'이다. 공교롭게도 두 편은 같은 시기 공개되면서 그의 어깨는 더 무겁다. “혹시 나를 지겨워하지 않을까, 과열경쟁으로 영화들이 저평가되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했다.

다행히 두 영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정우가 맡은 인물도 다르다. 저승의 재판을 이끄는 차사로, 엄혹한 1980년대 양심을 지킨 검사로 각각 관객을 만난다. 하정우는 “둘 다 소신이 강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신과함께”에서는 굉장히 절제했다. 감독님으로부터 나서지 말라는 주문도 받았다. 반면 '1987'는 다들 심각하고 긴장해 있었고, 나 혼자 생애교란종처럼 풀어졌다. 마음껏 연기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미지의 세계, 극적인 상황을 영화로 경험하는 일은 하정우를 자극하는 에너지다. 특히 '신과함께'의 경험은 특별했다.

“지옥 촬영을 하나씩 마칠 때마다 '미션 클리어'의 기분을 맛봤다. 아무래도 그린매트 앞에서 연기하는 일은 힘들었다. 허공에 삼장하는 느낌? 민망하다. 하하! 그런데 앞으로 배우가 그린매트 앞에서 연기할 일이 더 많

아질 테니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일이다.”

두 영화를 마치고 하정우는 11월까지 또 다른 작품 'PMC'를 찍었다. 내년 여름 개봉하는 '신과함께' 2편까지 더하면 4편을 완성한 셈이다. “디톡스가 필요했다”는 그는 이달 초 '제2의 고향' 하와이로 향했다. '신과함께'의 파트너 주지훈이 동행했다.

“열흘간 하루에 열 시간씩, 250km를 걷고 왔다. 걷다보면 뭉탈까, 씻기는 기분이다. 바로 그런 순간이 오면 좀 더 나은 결정과 생각을 할 수 있다. 사실 밀도 끝도 없이 걷는 거지. 고민 많은 후배들에게도 걷기를 추천한다. 나가서 걷고 사람들 만나 이야기하라고.”

하정우는 정우성, 이정재와 지난해부터 같은 회사에 몸담고 있다. 정우성을 “아버지”에, 이정재를 “어머니”에 비유한 그는 “셋 다 성향이 워낙 달라 대척점에서 다른 의견을 낸다”며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로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한다”고 했다.

세 명은 영화 제작도 본격 시작했다. 첫 번째 작품은 “일 벌이기 좋아하는” 하정우가 기획하고, 정우성이 제작 전반을 책임진 저예산 영화 '트레이드러브'다. 이어서 'PMC'를 합작했고, 또 다른 영화 '남산'도 제작한다.

할 일 많고, 하고 싶은 일은 더 많은 하정우도 곧 마흔 살. 함께 하는 '두 형님'이 그렇듯 결혼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안 그래도 결혼정보 업체에 등록할까 생각 중”이라는 그에게 진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제 마흔 살인데, 제니퍼 로렌스가 좋다. 키우는 강아지를 볼 때 '저게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도 하고, 타이밍이 있겠지. 아! 얼마 전 타로 점을 봤다. 'PMC' 야외 촬영장 근처 작은 가게의 주인아주머니가 타로를 보더라. 애정운 딱 하나 봤다.”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 “지금은 하는 일이 많아 결혼 생각을 못하지만 내년에 귀인이 나타나고 2~3년 뒤에 결혼 운이 있더라. 하하!”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